금산군수 충민공 권종의 충의를 기리자

권충민공순절비, 권열의 후손 권성기 전 금산종친회장

충민공(忠愍公) 권종(權悰, 추밀공파 22世)은 임진왜란 발발 바로 한 달 전인 3월에 금산군수로 부임하였다. 충민공은 4대째 내려오는 장손인데다 부친 찰방공(察訪公, 지軓)이 일찍 하세하는 바람에 빈한한 살림살이를 돌보며 지극정성으로 어머니를 봉양했다. 늦게야 효행과 염청(廉淸)으로 천거되어 벼슬길에 나서는 걸 보면 작은아버지(강정공康定公 권철權轍, 1503~1578)가 재상자리에만 30여년 있었고 영의정까지 지내 막강한 배경이었음에도 작은아버지의 힘을 빌어 출세할 생각은 없었던 듯하다. 충민공의 6대조는 조선 최초의 문형인 양촌 권근(1352~1409)이며, 5대조는 대제학 문경공 제(踶, 1387~1445), 고조부는 연천현감을 지낸 휘(麾), 증조부는 양근군수 교(僑), 할아버지는 강화부사를 지낸 적(勣), 아버지는 중림도찰방을 지낸 지(軓)이다. 이런 가문의 음덕도 마다하고 선영이 있는 경기도 포천군 소흘면 고모리에서 주로 생활하며 "부들대를 말려 엮은 자리를 바닥에 깐 방에서 기거하고 논밭두둑과 더불어 살며" 탄식하기를 "조부께서는 늘 짚으로 꼰 새끼를 쓰셨는데 나의 때에 와서는 밧줄을 쓰니 이는 선대를 더럽히는 것이다"할 정도로 청렴하고 검약하게 살았다. 그러나 관직에서 공무를 수행할 때는 뒤얽혀 있는 사무를 깔끔하게 처리하고 간활한 아전들을 제압하며 사사로이 아무것도 취하지 않아 임기를 마칠 때는 언제나 빈주머니 였으니 백성들의 원성이 있을 리가 없었다. 그야말로 노블리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의 표본이 아닐 수 없다.

충민공 권종 영정

1592년 6월 22일부터 금산군수 충민공이 싸운 전투, 즉 일명 개티전투를 시작으로 금산지역 전투는 8월 27일까지 약 2개월간 총 6차례에 걸쳐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김제군수 정담과 나주판관 이복남 등 1500여명이 싸운 곰티재 전투(7.7~7.8), 권율(1537~1599)장군과 1500여명이 필사의 전투를 벌인 이치대첩(7.8), 의병장 고경명(高敬命, 1533~1592) 등 800여명이 참전한 눈벌전투(7.9~7.10), 의병장 조헌(趙憲, 1544~1592)과 승장(僧將) 영규(靈圭, 미상~1592) 등 700여명의 연곤평 전투(8.18), 해남현감 변응정(邊應井, 1557~1592) 등의 횡당촌 전투(8.27)이다. 이 중에서 권율장군의 이치대첩만이 임진왜란 최초로 육지에서 승리했다. 나머지 5개 전투는 모두 패배했다. 칠백의총이 그 흔적이다. 왜군의 전략은 곡창지대인 호남을 공략하여 식량과 후방 보급선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그 관문이 금산이었다. 금산은 호남 방어의 최대 격전지였다. 금산은 당시 조선시대 행정구역상으로 전라도에 속했다.

임진왜란이라는 절체절명의 국가 위기를 맞자 금산군수 충민공은 임금이 도성과 궁궐을 버리고 서북쪽으로 피란길에 올랐다는 소식을 듣고 금산고을의 아전과 백성들을 거느리고 임금이 있는 북쪽을 향해 네 번 절하고 통곡하였다. 한편으로는 의병장 고경명(高敬命)에게 격문(檄文)을 보내고(숙종실록, 숙종36년 3월 3일) 다른 한편으로는 사촌동생인 광주목사 권율장군에게 서신을 보내 적을 토벌할 것을 전했다. 그러나 권율장군은 이미 서울을 향해 출발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다시 전라도 내 각 수령들에게 격문을 보내 이지시(李之詩, 미상~1592)와 백광언(白光彦, (白光彦, 미상~1592) 등과 나라를 위해 죽기로 맹세하고 전주에 모여 전략을 짠다.

전라도 순찰사 이광(李洸, 1541~1607)과 방어사 곽영(郭嶸, 생졸미상)은 근왕병을 모아 북상하여 적의 배후를 쳐 보급로를 끊고 앞뒤를 차단한 후 서울을 수복하는 것이 목표였다. 전라도 6만의 대군이 금강을 건너고 서울을 향해 북진하자 충청도 순찰사 김수(金睟, 1547~1615)와 경상도 순찰사 윤국형(尹國馨, 1543~1611)도 각기 수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합세했다. 근왕군은 13만에 이를 정도로 대군이었다. 이런 어마어마한 삼도순찰사 근왕군의 총지휘는 전라도 순찰사 이광이 맡았다. 대군이 용인에 이르자 수원에 주둔해 있던 적군은 부리나케 달아나 문소산(文小山)에 진을 쳤다. 적군을 박살내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이때 지략에 밝은 광주목사 권율장군은 지리가 불리함을 간파하고 대군으로서 소적을 상대함은 공연한 시간 낭비와 사기의 저하만 가져올 뿐이라고 공격을 만류했다. 그러나 근왕군의 총지휘관인 이광은 정황과 형세에 대한 지략과 안목이 거의 없는 인물이었다. 이광은 다짜고짜 공격 명령을 내린다. 적은 몇 시간이고 응전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군은 긴장이 풀리고 사기는 저하되었다. 그러던 중 느닷없이 왜적이 들고 일어나 공격하니 근왕군은 대패하고 말았다. 철저한 작전 실패였다. 이날이 6월 5일이었다.

이렇게 패하다 보니, "6월 20일에 적이 대거 옥천으로 들어왔다는 소문이 들렸는데 장차 호남을 유린할 것이라고 큰소리치는 군사가 2만을 호칭한다고 하니 원근이 놀라서 방어사는 진안에서 김제로 도주하고 순찰사는 전주에서 남원으로 피해버리고 여러 고을의 수령은 모두 산으로 도망가 숨어버렸다."(여재상서與宰相書) 죽음을 각오하고 싸워도 부족할 판에 전쟁의 책임을 맡고 있는 순찰사와 방어사들이 도망을 가다니, 참으로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여산에서 근왕군의 군량을 모으고 있던 금산군수 충민공 권종은 최후의 결전을 준비한다. "금산은 옥천과 땅이 상접해 있으므로 금산이 조석으로 병화를 입을 것으로 점치고 군관에게 말하기를 왜적이 이제 본도(전라도)를 범하려 하는데 방백과 안찰사가 모두 도망해 숨고 여러 고을은 사람이 없이 비어 있는데 내가 공무로 여기에 있으니 비록 금산이 적에게 함락되어도 내게 실로 할 말이 있다. 그러나 금산을 버리고 더불어 존망을 같이하지 않는다는 것은 의리로서 감히 할 수 없는 일이니 내게는 나가서 죽고야 말 일이 있을 뿐이다. 하였다. 드디어 사유를 갖추어 순찰사에게 보고하고 이튿날 금산으로 치달려 귀환해서는 창졸간에 사람을 모집하니 파리하고 약한 병졸이 2백에 이르지 못했다"(시장諡狀)

충민공 권종은 이렇게 약하고 오합지졸인 병력으로 순찰사나 방어사의 어떤 도움이나 지원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1만 5천명의 최정예 왜적을 맞아 싸웠던 것이다. 바로 옆 진산군수 마저도 급보를 받고도 산으로 숨어버렸다. 오직 제원역 찰방 이극경만이 달아나거나 숨지 않고 수하들과 함께 합세했다. 6월 21일 충민공은 찰방 이극경과 함께 금산고을의 객사에 임금의 궁궐을 상징하는 전(殿)과 패(牌)를 써 붙이고 통곡하였다. 그리고 반드시 죽고자 천지에 맹세하였다.

6월 22일 적장 고바야가와(小早川隆景)가 제6군 약 1만 5천명을 이끌고 금산의 맞은편인 충북 옥천을 거쳐 영동(永同)에 도착하였다는 소식을 접한 금산군수 충민공 권종은 왜적들이 반드시 금산으로 침입해 올 것이라며 다시금 전의를 다진다. 충민공은 영동에서 금산으로 진입하는 길목에 위치한 제원면 천내강(川內江)이 지형이 좁고 험한 요새이므로 정예부대로 막기만 하면 능히 방어할 수 있다고 역설한다. 이에 공주목사 허욱(許頊)과 여산군수 고경조(高敬祖)도 찬성하고 군량과 지원군을 보내겠다고 약속한다. 그러나 왜적이 갑자기 들이닥치자 전에 모의했던 수령들은 한 사람도 합세하지 못한 상태에서 휘하 군졸 소수 병력만을 이끌고 천내강 기슭 저곡산(楮谷山)에 진을 친다. 일촉즉발,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적과 대치하였다.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에 있는 천내강은 개티라고 부르기도 한다. 천내강은 금강의 상류에 위치하는데 강의 폭이 상당히 넓고 여울을 이루며 흐르고, 저곡산은 강의 나룻머리에 우뚝 머리를 내밀고 있는 형상이다. 일설에 의하면, 지략에 통달했던 충민공은 그 강물의 상류에 많은 황토를 뿌려 흙탕물이 흐르게 하여 적이 그 여울의 깊이를 알지 못하도록 하여 감히 건너오지 못하게 연막작전을 펼친다. 충민공은 적의 진격을 한시라도 지연시켜 지원군이 당도하여 아군의 전력을 증강시키는 것이 목표였다. 천내강에 들이닥친 왜적도 강의 깊이를 측량하지 못해 쉽게 강을 건너지 못했다. 그러나 어느 철부지 여인이 왜군이 있는 건너편에서 물가로 내려서더니 여울을 텀벙텀벙 걸어서 건너와 버렸다. 충민공의 책략은 수포로 돌아가고 강물이 깊지 않음을 알아버린 왜적은 물릴 듯이 뛰어들어 건너왔다고 한다.

격전의 현장인 천내강, 맞은편이 충청북도 영동

그날 밤 왜적은 야음을 틈타 강을 건너와 권종 부대를 포위하고 말았다. 거기에다 조총으로 무장하고 전투장비와 병력 수가 월등히 우세한 왜적을 당해낼 도리가 없었다. 충민공은 최후까지 혈전 끝에 아우 열(悅)과 아들 준(晙)과 함께 장렬하게 전사하였다. 당시 충민공은 60세가 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군관 고봉상(高鳳祥) 등 6명만이 간신히 죽음을 피했다.

이 소식을 들은 충민공의 큰 아들 현(晛, 1554~1594)은 적이 물러난 뒤인 1593년에 전사한 아버지와 동생의 시신을 찾아 포천 고향 선영에 장사하였다. 이때 순찰사 이정암(李廷馣, 1541~1600)은 "국토를 지키는 신하로서 강장(疆場)에서 죽은 것은 도내를 두루 보아도 이 사람뿐이니 호상하는 제반사를 마음을 다하여 거행하라"고 명한다.

그러나 직속상관인 순찰사 이광이나 방어사 곽영이 취한 조치는 보이지 않는다. 전몰 소식을 평안도 행재소에 급하게 장계로 보고했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다가 권율장군이 순찰사를 대신하게 되어서야 실상을 채집하고 탐방할 정도였다. 아들 현은 세자에게 글을 올려(상세자저하서上世子邸下書) "지금 조정의 상전(賞典)이 크게 패연하여 혹은 죽은 자를 포장(褒奬)하고 산 자를 휼양(卹養)하여 비록 몸을 온전히 하여 처자를 보호하고 있는 신하까지도 작상(爵賞)을 외람되이 받고 있는데 홀로 신의 아비만이 죽었는데도 포상의 명이 없고 그 처자로서 산 자는 휼전(卹典)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하고 억울함을 호소한다. 이렇게 해서 포장 받은 것도 겨우 3품의 관원(종3품의 시헌부집의司憲府執義)으로 추증되었을 뿐이었다. 나중에 손자 진(縉, 1572~1624)이 1597년 과거에 급제한 후 할아버지 충민공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재상에게 보내고(여재상서與宰相書) 나서야 1605년 선무원종공신 1등에 책훈되고 이조판서로 추증된다. 그러나 함께 전사한 동생 권열과 아들 권준의 이름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1710년(숙종36)에 이르러서야 정려(旌閭)하고, 그 이듬해 1711년에는 충민(忠愍)이라는 시호를 내린다. 또한 순절한 지 286년이 흐른 1878년(고종15)에야 권충민공순절비(權忠愍公殉節碑)를 세운다. 1974년에는 충청남도와 금산군의 지원을 받아 순절비 보호 비각을 세운다.

순절비를 답사해보니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처했을 때 목숨을 바쳐 결사 항전했던 충민공의 충의(忠義)에 비하면 너무나 빈약하고 초라했다. 충청남도를 비롯해 금산군이 충민공의 애국정신을 선양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을까. 이 문제는 한 문중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역사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하는 국가적이고 역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편집국장 권행완

인문학 이야기(2)

권용만 교수(심리학, 철학박사, 38세, 부정공파)

철학(哲學)으로 생각하고 심리(心理)로 말한다!

1. 철학(Philosophy)이란 무엇인가?

그리스 시대부터 철학이라는 단어 'Philosophy'의 'Philo'는 '~를 사랑하는'을 뜻하고, 'Sophia'는 '지혜(智慧)'를 뜻한다. 따라서 철학이란 말 그대로 '지혜 사랑'이며, 실제로는 인간이 존재하는 혹은 존재해야 하는 방식· 이유· 의미 등 인간 상황에 대한 근원적이고 보편적인 이해를 추구하는 학문이다.

이에 대해 철학자들은 진리를 분간해내기 위한 살핌(觀察)과 문답의 방식 등을 사용한다. 나아가 서양 철학은 대략 다섯 가지 분과로 구성되는 것으로 정리된다. 우주 혹은 실재의 본성에 집중하는 형이상학(形而上學), 추론의 규칙을 탐구하는 논리학(論理學), 지식의 본성 및 지식을 얻는 과정을 따져 묻는 인식론(認識論), 인간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도덕적 가치 및 규범을 모색하는 윤리학(倫理學), 아름다움의 본질 혹은 예술의 기준 등을 정립하고자 하는 미학(美學)이 그것이다.

철학이란 용어는 오늘날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어 철학이 무엇인가 하는 점을 한 가지 개념으로 분명하게 파악하기는 힘들다.

철학이라는 개념 자체가 갖는 포괄성(包括性)과 다의성(多義性)때문에 철학 앞에는 관념론적 철학· 경험론적 철학· 실존론적 철학· 과학철학 내지 언어철학 등 각 철학의 주제와 특징에 따른 수식어가 항상 붙어 있다 또 지역적으로는 서양철학· 동양철학 및 한국철학이라는 명칭이 함께 쓰이기도 한다.

철학이라는 이름을 가진 학문이 이와 같이 다양한 주제와 광범위한 영역을 갖게 된 것은 이 학문이 오랜 역사를 통해 발달해 온데다가, 철학을 행하는 방식이 철학의 개념을 규정해 왔기 때문이다. 철학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철학이라는 용어가 어떻게 생겨났고, 초기에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었는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소크라테스(Socrates) 및 플라톤(Platon)은 철학을 단순한 "지식의 전달" 내지 "지식의 과시"로 보는 소피스트(Sophist)들과는 달리 철학을 참다운 앎을 얻기 위한 노력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지식의 과시"보다는 "참다운 지식"을 얻기 위해 '대화를 통한 검토와 반박의 과정'을 중요시했다.

대화를 통한 검토와 반박의 과정에 의해서 참다운 앎을 획득해 가는 자기 비판적 탐구정신은 소크라테스에게 있어 이미 삶의 태도와 관련되고 있었다. 대화를 통해서 기존의 지식과 경험을 자기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판단해서 나온 참다운 앎에 따른 행위가 바로 자율적이고 이성에 근거한 윤리로 정초(定礎)되기 때문이다.

소크라테스가 추구한 참다운 "지에 대한 사랑", 즉 철학은 '이론적 지식' 뿐만 아니라 선악의 인식을 내용으로 삼으며, 비판적 자기 검토를 통해 올바른 실천적 행위를 목표로 하는 '실천적인 지식'을 뜻한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에게 철학은 "지행합일(知行合一)"의 성격을 띠게 된다.

앎에 대한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출발했던 "철학"의 용어는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에 이르러 인간 바깥의 자연세계 및 우주에 대한 이론적 앎, 그리고 인간의 올바른 행위를 다루는 실천적 앎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도 이론적 앎과 실천적 앎은 서로 떨어져 있는 별개의 것은 아니어서 이 양자는 철학의 용어로 통합되었다. 철학이라는 용어는 초창기에 "지혜에 대한 사랑 내지 추구"로부터 시작해서 소크라테스 이후에는 자기비판을 통한 참다운 앎의 추구와 그 앎에 따른 실천적 행위로 이해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철학(哲學)에 대한 고전적 의미를 살펴보았는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지금 어떠한 철학을 해야 하는지가 이번 강연의 제 1 테마이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없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은 생각 : 깨우침, 즉 철학('마음을 밝게 하는 사고와 감정의 정리를 통한 철학적 삶')을 하고 살고 있다는 말이다. 이 철학적 사고가 '말(언어) '이라는 수단과 '몸의 행위 '로 나타날 때, 비로소 우리는 상대에 대한 관계의 정리와 자신에 대한 가치의 판단을 내리게 된다. 그러므로 고전적인 철학(Classical Philosophy)을 바탕((Base)로 하여서 스스로의 삶 가운데서 최고의 선과 가치(Goodness and Value)을 추구하여 나아가며, 자신만의 철학의 방법(Method of one's Philosophy)을 매 순간, 매일, 인생의 남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철학적 사고를 해야 할 이유이다.

2. 소크라테스가 말한 '지행합일'(知行合一)을 실천하는 심리학적 사고와 행동(Psychological Thinking and Behavior)의 표출방법은 어떠한 것인가?

인류의 위대한 스승 중의 한 사람인 소크라테스(Socrates B.C 470-399)는 사상과 문답적 사고법(상대 및 자신)의 결론은 비판적 사고를 통하여 올바른 신체적 행위를 하는 것, 즉 지행합일을 주장하여 오늘까지 우리의 행동양식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 이 철학적 사고법이 어떻게 심리적으로 우리를 움직여 나아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의 너무나 유명한 명언인, "너 자신을 알라!"와 무지의 지(無知의 知)를 역설한 그의 사상과 철학은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우리들에게 지혜의 깨우침을 향한 경구(警句. Epigram)이다.

이 지혜의 깨달음을 위하여 우선 '심리학(Psychology : Science of Mind)이란 무엇인가? '를 살펴보아야 한다. 심리학이란 한 마디로 결론을 내리기는 무척 어렵다. 어원은 '프쉬케(Psyche)의 학문, 즉 '마음의 학문'이지만 그것이 또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른 학문도 마찬가지리라. 그래도 심리학이 어떤 학문인지 알기 위해 단어의 의미에서 출발해보자. 심리학은 철학의 한 분야인 인식론에서 시작하여 19세기후반에 비로소 실험과학으로 독립하였다. 인간의 심층적 이해와 인간이 당면한 실제적인 문제들의 해결 및 심리장애 치료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음이 지금의 현실이다. 동양의 경우는 마음의 이치를 객관적으로 밝히려는 이론적, 실증적 심리학은 없었고 마음의 수양(修養), 도의 추구(道의 追求), 새로운 의식의 상태를 배워나가는 심학(心學)이 오랫동안 발전해 왔다. 공자와 맹자를 필두로 하여 수많은 사상가와 철학자를 통한 동양철학은 그 뿌리부터 서양철학과는 대조를 이룬다.

이 많은 사상과 철학을 차치(且置)하고 심리학(Psychology)을 문자로 살펴보면, 한자로 '마음(心)의 이치(理)에 대한 학문(學)', 영어의 어원인 헬라어로는 '마음(psyche, ψυχη : mind, head, brain, nous : 상식. 지혜. 지성)에 대한 학문(logy, λὸγια : logos 말씀)'이다. 한자와 영어 모두 심리학은 '마음에 대한 학문'이라 한다. 신학(神學. Theology)은 데오스(Deos)와 로기아(Logia)의 합성어이다. 그런데 헬라어 ψυχη(프쉬케)는 마음(정신)으로도 번역되지만 영혼으로도 번역할 수 있다.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마음과 영혼의 구분이 중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기독교 중심인 중세를 거치면서 마음과 영혼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결국 이 두 용어를 구분한 사람이 나오게 되었다. 바로 멜랑히톤(Philipp Melanchthon)이다. 루터와 함께 종교개혁 운동을 이끈 그는 영혼에 대한 학문(Pneuma tology)과 마음에 대한 학문을 구별하기 위해 자신의 저서에서 'Psychology'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했다. 마음(Mind)과 영혼(Soul)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 결론을 내리기가 무척이나 어려운 질문이다. 독자 자신들이 사고하여 깨달아야할 철학의 논재(論材) 중 하나이다.

그러므로 심리학(心理學 : Psychology)은 생물체의 의식 현상과 행동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예전에는 형이상학 안에 포함하여 생각하였으나 오늘날에는 실험 과학의 경향을 띠고 있다. 기초 심리학 · 응용 심리학 따위의 여러 갈래로 나누며, 군사 · 산업 · 교육 따위의 실생활에 널리 응용한다. 수많은 분야, 우리들 삶의 전반적인 분야(인문, 의학, 사회, 성별, 나이별, 종교, 상담, 건강 등)에 걸쳐서 응용되고 적용되고 있기에 모두를 언급하고 배운다는 것은 지극히 많은 시간을 요한다고 본다. 세상사의 모든 것들이 심리적 작용, 즉 마음의 작용이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만큼 복잡다단한 성격을 지닌다.

우리가 오늘 접근해야 하는 심리학적 사고의 방향은 각 분야의 학문적 개념이나 응용방법을 알아보자는 것이 아니다. 플라톤(Platon)에서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로 이어지는 철학적 뿌리는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기초로 한다.

플라톤은 '어떤 종류의 지식은 선천적으로 타고 난다'는 생득설(生得說. Nativism)을 주창하였고, 아리스텔레스는 '모든 지식은 경험을 통해 획득 한다'는 철학적 경험주의(Philosophical Empiricism), 즉 백지상태(Tabula rasa)를 주창하였다. 이처럼 모두 다 우리의 마음(Mind, Soul)의 움직여 나아가는 기본과 방향들을 제시하여 왔다.

오늘 여기서는 앞서 말씀드린 철학의 학문적 사고를 벗어나 실생활에 적용하여 최고의 선과 가치를 이루어 나아가는 방법을 알아보았듯이, 심리학이라는 학문적 연구를 벗어나서, 이 심리학적인 사고가 우리들 생활에 미치는 시대적, 환경적인 면에서 접근하여 본다.

다시 말하여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떠한 심리, 마인드로 자신과 가족, 나아가 사회와 민족에 대하여 생각(철학)하고 말하고 행동(심리학적 행위)할 것인가의 방법들을 배우고자 한다. '마음과 행동(Mind and Behaviour)'를 '어떻게 가지고 해야 하는가? '에 따른 방법을 연구하여 본다.